

여수시, 역사·문화 어우러진 '문화 향유도시' 구축 박차

진남관·전라좌수영성 동헌 연계 역사문화공원 조성 속도 돌산읍 굴강 발굴조사 후 역사·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 거문도 5년간 360억 투입 역사문화 공간·체험공간 마련

여수시가 선사시대부터 임진왜란까지 방대한 역사자원을 활용해 미래 가치를 높이고 문화 향유 도시의 기반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들어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유산과를 신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향유 도시' 구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여수에는 국보 진남관을 포함해 총 58개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여수는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본영이 있던 곳으로,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유적들이 곳곳에 있다.

진남관의 보수공사는 내년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달 현재 공정률은 80%로, 지붕 위에 기와를 잇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수 상량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오후 1회씩 보수현장을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진남관은 지난 2013년 뒤뜰림과 지반 하부 침식 등의 문제로 전면 보수를 결정했으며, 2018년 해체됐다.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을 복원하는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진남관 뒤 관문동과 동산동, 군자동 일원 부지에 운주현, 결승당 등 전라좌수영 동헌 8동을 복원할 방침이다.

전라좌수영 동헌은 조선시대 성종 10년(1479)에 설치돼 고종 32년(1895)까지 417년간 조선 수군의 주진이었다.

여수시는 올해8까지 총 매입대상 토지 80필지와 건물 53동에 대한 보상비 140억 원을 들여 보상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매입 필지(토지 31필지·건물 19동)에 대한 철거를 끝내고 동헌 복원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진남관과 전라좌수영성, 동헌을 연계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선소유적지는 국·도비 239억원을 들여 '선소테마정원'으로 거듭난다.

내년 말까지 선소유적지 13만3484㎡ 일대에 선소테마정원·전시관과 탐방로, 역사배움터 등을 조성한다.

이달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착공, 내년 말 준공할 목표를 세웠다.

돌산읍 방담진성과 굴강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6



여수시가 선사시대부터 임진왜란, 근현대에 이어지는 방대한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 향유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내년 말 보수를 마무리하는 국보 진남관의 지붕 공사 모습.

월까지 발굴조사를 벌였다.

굴강 발굴조사 결과 석축 상태가 양호하고 돌계단, 출입구가 확인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여수시는 학술대회 등을 거친 뒤 복원·정비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도 지정·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방담진성 발굴조사를 벌이고 굴강 주변을 정비해 역사·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수 거문도는 올해 문화재청 주관 근대역사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해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전시·체험공간을 마

련한다. 내년까지는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에서는 3차원(3D) 레이저 입력과 드론 촬영 등 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다.

낭도리 화석산지는 지난 200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뒤 20년간 풍화와 침해, 해수면 상승 등에 따라 훼손을 겪어왔다.

여수시는 공룡발자국 상태를 기록해 앞으로 화석 보존처리와 복원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화재 인근에 폐쇄회로(CC) TV를 확대 설치하고 안내판을 정비할 방침이다.

여수에는 사도 755점, 추도 1759점, 낭도 962점, 목도 50점, 적금도 20점 등 5개 섬에 총 3546점의 공룡발자국에 분포돼 있다.

일출 명소 여수 금오산 '향일암'(向日庵)은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며 인기를 더하고 있다.

올해 6월 여수시는 주민들과 기념행사를 열고 '상백도 하백도 일원' 명승지정 이후 44년 만의 자연유산 신규 지정을 축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역사자원의 체계적 발굴·복원·활용을 통한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 청소년 20여명 3박 4일 서울 찾아 역사·문화 교류

이달 초 서울 청소년 방문에 답방

서울 청소년들을 초청해 역사·문화 교류를 한 구례 청소년들이 이번에는 서울로 간다.

구례군은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구례군-서울시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캠프 'C.P.A'(Culture, Politics, Art)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례군과 서울시는 업무협약을 맺어 역사·문화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초청을 받은 구례 청소년 20여 명은 3박 4일간 서울을 찾아 그곳의 정치, 예술, 교육, 역사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달 1일에는 구례군이 서울시 청소년들을 초청해 3박 4일 일정으로 '2023 자연으로 가는 길'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섬진강 래프팅, 지리산 스카이라인, 캠핑 등 활동을 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교류를 통해 구례의 청소년들이 더욱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품고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이달 초 구례군 초청을 받은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섬진강 래프팅을 체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순천대 글로벌 대학 지정 위한 토론회

18일까지 네차례 열어

지역·산업·학계 협력 방안 논의

순천시가 순천대학교의 '글로벌 대학 30' 본 지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순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순천대학교에서 '글로벌 대학 30 본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네 차례에 걸쳐 열고 16일 밝혔다.

순천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그린 스마트팜'과 '우주항공·첨단소재' '특화

분야 강소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한 지역·산업·학계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토론회는 '에이메이션 문화콘텐츠'를 소재로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순천시 소속 국·과장은 주요 토론자로 나서 관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순천대의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9를 제시했다.

순천대에서는 각 분야 교수, 외부 전문가가 참가해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순천대는 글로벌 대학 30 본 지정 평가에 앞서

9월 초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거쳐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10월 초 교육부에 실행계획을 제출한 뒤 같은 달 말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파격 지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글로벌 대학 30 본 지정을 앞두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방향성을 다듬어 실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 창구를 마련해 순천대가 글로벌 대학 30 선정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예술의 섬 여수 장도서

알록달록 양산 빌려 쓰세요

여수시가 '예술의 섬'이라 불리는 장도(웅천동)를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알록달록 색깔 우산을 빌려주기로 했다.

'예술의 섬 장도'는 GS칼텍스 예술마루의 공헌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9년 조성됐다.

지역 예술인 등을 위한 창작 공간을 지원하고, 장도근린공원 안에 장도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는 장도에 있는 해안 산책로와 생태복원 숲, 해안 쉼터 등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장도 입구에 우산 겸 양산을 비치했다.

우산은 동백꽃이 떠오르게 하는 빨강·노랑·초록 세 가지 색으로 마련됐다.

여수시는 올해 다도해 정원과 우물섬터,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동백꽃을 상징하는 우산



여수 웅천 장도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무료로 빌린 우산 겸 양산을 쓰고 햇볕을 피하고 있다. 이 웅천 장도공원의 명물이 되길 바란다"며 "장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숲과 MICE(기업관광회의) 최적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현충탑·우산공원에 복합산림경관숲

사계절 꽃 피는 명품공원 재탄생

광양시가 도심공원 내 사계절 꽃과 식물이 어우러진 복합산림경관숲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복합산림경관숲'은 산림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생태·시간·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숲으로, 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시는 2022년도 마동 현충탑공원 경관숲 사업과 2023년도 광양 우산공원 산림경관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명품공원 조성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마동 현충탑공원'은 공원 일원 공공지를 활용해 철쭉, 산벚나무, 황매화 등 1만 1640주의 다채로운 나무를 심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산림경관 속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걷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진>

올해 상반기에는 2억원을 투입해 광양 '우산공원' 내 814㎡에 1만 2710여 주의 수국을 심어 아름다운 복합산림경관숲을 조성했다. 우산공원은 앞으로 광양을 대표하는 수국정원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김재원 광양시 공원과장은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지속해서 조성하겠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구례군 1조 5000억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 총력

구례군이 1조5000억원 규모 양수발전소 건립(광주일보 6월1일자 14면) 당락이 오는 11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고 유치 달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구례군은 500MW급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문척면 일원을 지정한 뒤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북 무주군 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에는 1MW당 약 30억원이 들 것으로 구례군은 내다봤다.

구례군이 유치하려는 500MW급 양수발전소 건립에는 1조 50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

건립 공사 기간은 약 7년에서 10년 정도로 예상된다.

구례군은 발전소를 건립하면 100여 명의 상주 인력 등 6000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해마다 10억원에 달하는 세수 수익이 발생하고 발전소 주변 관광 자원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례군 방문단이 찾은 무주 양수발전소의 김성겸 홍보담당은 "양수발전소가 생기면 주변 지역 소득을 높일 수 있다"며 "공공 사회복지와 주민복지 지원, 교육·장학사업, 문화진흥 사업 등 연간 발생 할 것으로 기대하는 직·간접적인 효과액은 수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이 검토하고 있는 양수발전 방식(프랑스식 수차방식)을 도입할 경기 포천 양수발전소 설계 조감도. <구례군 제공>

김태근 구례군 기획예산실장은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자연 환경 보전 방안을 수립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경기 청평, 경남 삼랑진·산청, 경북 정송·예천, 전북 무주, 강원 양양 등 7개 지역에서 양수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 영동·홍천, 경기 포천 등 3곳에서는 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구례·경북 봉화,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영양·경남 합천, 한국동서발전은 곡성과 양수발전소 신규 건립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